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금감원, 보험회사 리스크공시 새 기준 마련

□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관리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공시기준을 '10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함.

-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공시를 확대하는 등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추세이나, 국내보험회사의 경우 세부적인 공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제감독기구 등의 권고 수준에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생·손보험회, 10개 보험회사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여 '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'을 마련하고 '09년 11월 '경영통일공시기준'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함.

□ 새 공시기준에는 리스크관리 체제, 리스크 종류별 관리현황, 자본적정성 평가결과, 공시기준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며, 앞으로 모든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노출규모 뿐만 아니라 리스크 인프라 및 보유리스크에 대비한 자기자본 관련 정보도 상세히 공시해야 함.

- 또한 보험회사 리스크를 종류별(보험·금리·신용·시장·유동성·운영 리스크)로 구분하고 주요 리스크요인(주가, 금리, 환율, 위험률, 계약해지율 등)의 변동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민감도 분석 내용도 공시해야 함.
-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위험관리정책, 위험관리조직의 구조와 기능 등 리스크관리 실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고 매분기마다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이와 변동 원인 등 자본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밝혀야 함.

□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모든 공시항목에 양적·질적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리스크관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, 공시를 통해 보험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규율 강화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함.

- 또한 공시내용이 서술형인 점을 감안하여 대형 보험회사가 시험적으로 작성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치하고 중·소형사들이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.

(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마련, 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제도실 보험팀, 11/25)